

## 타이완의 일본군'위안부'들은 정의를 원한다.

Yu-Fang Shiau

우리는 “위로금”을 반대한다.

우리는 '민간기금'과 '위로금'의 계획에 반대한다. 왜냐하면 그것은 일본군'위안부'들에 대한 정당한 배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것은 또한 일본정부가 몇차례에 걸쳐 일본군'위안부'들에게 사과를 하긴 했지만, 그것이 진실하고 뉘우침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

우리는 이 계획이 일본정부가 책임을 회피하고 '전범국'이라는 낙인을 피하려는 것이기 때문에 반대한다. '민간기금'을 이용함으로써 일본정부는 일본이 이 범죄에 가담했다는 것을 부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일본정부가 2차 대전중에 아시아-태평양지역 전역에 대규모로 성노예제도를 설립하고, 운영했던 것이다. 이 전범국이 희생자들에게 배상을 하지 않고, 공식적인 사과를 하지 않으려는 것이다. 대신에 일본은 살아있는 희생자들에게 자비로운 도움을 준다는 의미로 적은 양의 '위로금'을 주려고 하고 있다.

희생자들이 바라는 것은 일본정부에게 정의와 존엄을 되돌려 받는 것이다. 그들은 일본정부에게 돈을 구걸하는 거지가 아니다. 타이완의 일본군'위안부'들은 '위로금'을 절대로 받지 않을 것이다.

왜 우리는 '위로금'을 반대하는가?

일본군'위안부' 강제동원은 일본정부가 행한 체계적인 범죄이다. 그 범죄의 성격은 강제성노예화와 체계적 강간이다. 그것은 심각한 인권침해이며, 전쟁범죄 및 어린이와 여성의 매매금지법의 위반이다. 이 여성들은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모욕당하고, 전쟁에서 죽기도 했다. 그들의 삶은 이 모욕이 있는 후 전적으로 달라졌다.

따라서 일본정부는 법에 따라 자신이 행한 범죄에 대해서 이 여성들에게 배상해야 한다. 일본정부는 이 여성들에게 범죄의 심각함과 성격에 따라 정당한 배상을 행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이 문제는 올바르게 해결될 수 없다.

정당한 배상은 이 여성들에게 개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그 돈은 민간기금에서가 아니라, 정부로부터 나와야 한다. 배상은 어떤 사람이나 조직이 아니라 일본정부의 책임이다. 이 여성들에 대한 배상은 물질적인 배상과 정신적인 배상을 포함해야 한다. 따라서 배상의 액수는 범죄의 성격과 파괴력에 맞게 충분히 높아야 한다. 타이완 일본군'위안부'들은 적어도 2000만엔을 넘는 배상액수를 요구해 왔다.

'위로금'과 '민간기금'의 계획은 절대로 정당한 배상이 아니다. 늙고 병든 이 여성들은 필사적으로 정의를 기다리고 있다. 정의란 적어도 존엄의 회복, 일본정부로부터의 공식적 사과, 이 문제에 대한 철저한 조사, 그리고 이 여성들에 대한 정당한 배상을 포함해야 한다. 오랫동안 수차례에 걸쳐서 여러 피해국의 여성들은 그들의 요구를 명백히 해 왔다.

'민간기금'안에서 일본정부는 그들이 2차 대전중 일본에 의해 징집된 군인들에게 배

상했다고 밝혔다. 일본정부는 전쟁중에 죽거나 부상당한 타이완의 군인들에게, 그 돈의 액수는 부적절한 것이었지만, 한 사람당 20만엔씩 배상하는 법을 통과시켰다. 그런데 일본군'위안부'들의 인권은 어디로 갔는가? 일본정부는 일본군'위안부'들에 대한 차별과 부정을 수치스럽게 생각해야 한다.

“우리는 정의를 원한다”고 타이완의 일본군'위안부'들은 요구한다.